“100만kg 쌀 나눔, 원력이라 행복해”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연꽃자비나눔본부 대표 도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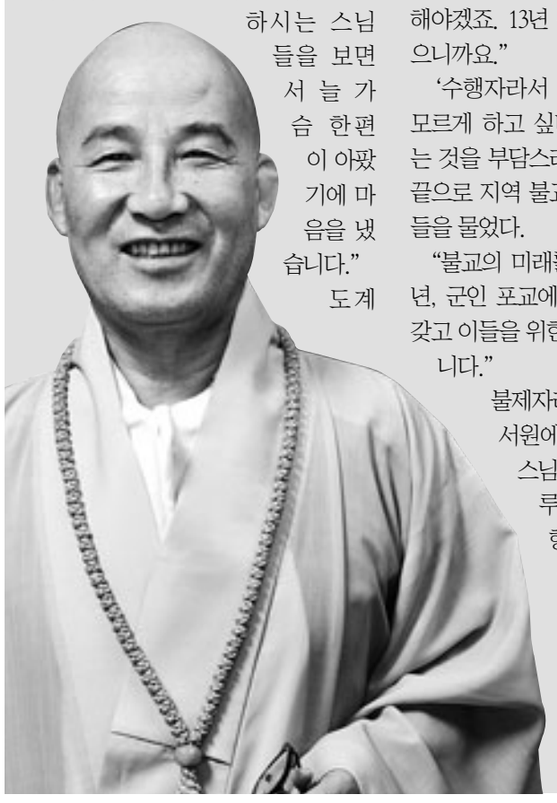
중국에서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진 고승 포대화상. 성씨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고승의 형상은 긴 눈썹과 불룩 튀어나온 배, 후덕한 인상을 하고 있다. 긴 막대기에 항상 포대를 걸친 채 모든 시줏물을 담아뒀다가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줘 ‘포대화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런데 빛고을 광주에도 어려운 이들에게 포대화상과 같이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스님이 있다. 바로 연꽃자비나눔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사진〉이다.

인터뷰를 위해 찾은 소원정사는 광주 남구에 있는 자그마한 주택을 임법당 형식으로 만든 아주 소박한 사찰이었다. 문득 ‘이 작은 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계 스님의 나눔 행적은 사찰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스님은 지난 5월 광주지역 불교단체가 실시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을 위한 승보공양’ 프로그램에 참여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 마련에 난항을 겪던 이 사업은 도계 스님의 기금 쾌척으로 탄력을 받았고, 장기간 병환 중인 두 스님에게 의료지원비를 전달할 수 있었다.

“만행을 다니다 보면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부처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들을 보면서 늘 가슴 한편이 아팠기에 마음을 냈습니다.”



도계 스님의 자비행은 봉녕사 학인스님에게 장학금 전달, 작은 시골 사찰에 불사금 시주, 지역 불교단체 및 어린이·청소년단체 후원 등 계층을 넘어 다양하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년 1회씩 지원하는 자비의 쌀 전달이다. 연꽃자비나눔본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8개 도시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무려 7만6000kg의 쌀이 모연돼 각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광주를 비롯해 대구, 인천, 화성, 강원, 대전 등 인연 있는 신도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복지 제도가 뛰어난 편이지만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님 공양물인 쌀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처럼 도계 스님이 13년째 진행해 온 쌀 나눔은 어느덧 100만kg에 달한다. 14년 전 광주에 처음 온 후 꿈결

승보공양·단체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 모범
10만 중생 돕는 게 목표

같이 아미타불을 친견해 ‘10만 중생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원력을 세운 스님은 여태껏 주변에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고 나눔을 이어왔다.

“원력은 이제 절반쯤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3년 정도 더 나누다 보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기도해야겠죠. 13년 뒤엔 저도 80세가 넘으니까요.”

‘수행자라서 나눔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고 싶다’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도계 스님에게 끝으로 지역 불교계가 신경써야할 것들을 물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군인 포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서원을 세웠으면 합니다.”

불제자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서원에 맞춰 수행한다. 도계 스님은 자신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나눔으로 수행한다. 스님이 광주에 첫발을 내딛으며 세운 나눔이라는 서원이 마지막 발걸음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본서 느낀 ‘海上王’ 숨결

(사)장보고아카데미, 완도 섬 아이들과 일본유적 문화답사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운영하는 (사)장보고아카데미가 완도 섬 아이들과 함께 문화답사를 실시해 화제다.

완도지역 어린이·청소년 문화단체인 장보고아카데미는 8월 1~5일 일본 백제문화 유적과 장보고대사 유적, 근현대 한국과의 교류가 있는 일본지역 문화답사를 진행했다. 답사에는 섬 아이들 24명을 포함해 지도교사 등 30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1일 신흥사서 입재식과 오리엔테이션, 장보고 영상 시청 등으로 시작됐다. 이후 일본 시모노세키조약 장소인 춘범루,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아카마신궁 등 근현대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기타큐슈 지역과 장보고대사가 신으로 모셔진 연력사, 백제계 양식의 건축물이 돋보인 사천왕사 등 오사카·나라 지역을 답사했다. 특히 행사 중간에 다양한 장보고 미션을 통해 해상왕 장보고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지도법사 지성 스님은 “완도의 섬 아이들이 장보고대사의 삶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고, 불교와의 많은 인연을 배워갈 수 있어서 즐겁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보고아카데미 어린이 문화답사단이 1985년 청국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조약 장소인 춘범루를 답사하는 모습.

행사를 준비한 위대한 사무국장은 “문화적으로 소외계층인 전남의 섬 아이들이 세계무대를 장악했던 장보고대사의 기개를 배워 앞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동량으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답사에 참여한 임나한(13, 초6) 어린이는 “완도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이 배출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앞으로 장보고대사의 자랑스러운 후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당나라에서 유학한 일본 천태종 중창조인 엔닌 스님은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귀국길을 보살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엔닌 스님은 자신의 저술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己)〉에서 장보고에 대한 글을 남겼다. 현재 연력사에는 장보고를 해신(海神)으로 칭송해 신위를 모셨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문화라고 어색하지 않아요!”

사단법인 착한벗들, 다문화 어린이캠프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2017 다꿈틔움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다.

7월 28~30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어린이 캠프는 입재식에 이어 △발우공양 △예불 △사찌명상 △참선 등의 불교문화체험과 △물놀이 △미니올림픽 △베트남 음식 체험 △공포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놀이 및 체험이 펼쳐졌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참가 어린이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비(非)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됐다.

또 놀이를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배양하고 마음을 나눠 모든 이가 평등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다꿈틔움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장궤합장한 채 예불을 체험하고 있다.

또한 (사)착한벗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다문화아동과 비 다문화아동 참가자에 대해 별도의 참가비를 지원했으며, 중·고등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보조교사로 참가해 어린이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다.

입재식에서 회일 스님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늘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포교대책이 절실하다”며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대비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캠프를 통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좋은우리절은 매년 방학을 맞은 어린이불자들을 위해 10년째 캠프를 열고 있으며, 사단법인 착한벗들을 통해 본격적인 다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協 삼계탕·생수 나눔

7월 27일, 재소자 격려 차원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폭염 속에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삼계탕과 생수를 전달했다.〈사진〉

승천 스님과 진성 스님 등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7월 27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삼계탕 1400인분의 식재료와 생수 6000병을 후원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와 불교, 기독교, 원불교, 일반교화 분과위원장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마련했다.

구지서 전주교도소장은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의 무더위를 식히고 건강을 챙겨 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감사 드리며 더욱 더 솔선수범하는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승천 스님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성실히 교정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식을 준비했다”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수와 삼계탕을 먹고 수용생활을 이겨내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사회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님떡볶이’에 담긴 전주 어린이 사랑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과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의 ‘스님 떡볶이’가 소외된 어린이들을 찾아 나섰다.

스님떡볶이봉사단은 7월 26일 전주 전통문화전당 4층 강당서 열린 덕진구 지역아동센터 스포츠스태킹 대회를 찾아 소외계층 아동 100여 명에게 아이스크림, 떡볶이를 제공하고 격려했다.

탑사 탑밴드봉사단도 동참한 이날 봉사활동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온라인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성 스님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밝고 행복한 미소를 보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보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행

옥천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옥천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장 소 :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H·P 010-5960-2085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 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무한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상담문의:031-773-7838;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9호